

이용백 개인전: 낯선산책

Lee Yongbaek Solo Exhibition: The Unfamiliar Walk



지구는 어떤 힘으로 자전하는가?, 2015, HD Video, 10min 00sec

전시개요

전시명 : 이용백 개인전

Lee Yongbaek Exhibition

낯선산책

일 시 : 2016년 8월 19일(금)-9월 25일(일) 38일간

장 소 : 학교재갤러리 신관

문 의 : 02-720-1524~6

출품작 : 7점

보도자료

www.webhard.com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60819 - 20160925 이용백展]

1. 전시개요

학교재갤러리는 8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용백(Lee Yongbaek, 1966~, 김포)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석 후 가지는 첫 국내 개인전이다. 이용백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작품이 매진돼 예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작가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전시에는 2.1m에 이르는 움직이는 거울 8점으로 구성된 설치 작품을 포함, 4점의 설치 작품과 3점의 영상작업 등 총 7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용백의 작품은 현대사회 속 세계의 모습, 특히 한국의 모습을 반영하며, 작가가 살아가는 사회의 이중성, 인터넷과 SNS 및 방송에서 보았던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 느끼는 감정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학교재는 이번 전시를 통해 2011년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 작가의 고민이 작품에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국내 관객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전시주제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성공적 개최 이후 첫 국내 개인전

2011년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뉴욕현대미술관 이사회 멤버 14명을 시작으로 구겐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테이트모던갤러리등 주요 미술관 대표들이 줄줄이 다녀갔다. '민족국가의 재조명(Illumi-nation)'이라는 당시 비엔날레 주제를 표현하기에 분단 국가로서의 한국 국가 상황이 그들에게 흥미로웠을 것이며 명성 있는 미국의 철학자 존 라이크만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한국관 전시 서문을 썼기 때문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용백은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선보여 한국관 개관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작품을 매진 시키고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 국제적인 언론 및 평론가들에게 높이 평가받으며 예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작가로 화제를 모았다.

이후 5년의 세월을 지나 이용백 작가가 첫 국내 개인전을 연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개인전 이후로는 8년의 세월이 지났다. 슈퍼너라이 할레12 베아크샤우, 라이프치히, 독일과 품화랑, 베이징에서 개인전을 열고 유럽에서 다수의 그룹 전시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 활동을 펼치다보니 시간이 흘렀다. 신작 '낯선 산책', '누구나 알고있는 비밀', '지루하고 흔해빠진 소재를 작업하는 이유'와 기존 버전에서 확장된 '엔젤-술져', '브로큰 미러'를 선보인다.

백남준의 후예, 이용백이 펼치는 미디어 아트의 세계

2015년 12월, 세종문화회관에서 미디어아트 선구자 백남준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백남준 그루브_흥' 전시가 열렸다. 이 전시에서 이용백은 회관 바깥 대극장 기둥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상영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유학 당시 이용백은 백남준과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잘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를 줄여라" "작품을 현실화하기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찾아라, 지금 아이디어를 바로 현실과 시켜야 한다"등의 조언을 이용백에게 남긴 백남준은 그의 작업 세계와 작가로서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줬다.

국제적 화랑 가고시안에서 백남준의 유족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백남준 서거 10주기를 기념하며, 백남준에 대한 국제적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속에서 국내 미디어 작가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백남준이 비디오아트를 창시하고 세계적인 미술 장르로 만들었다면 이용백은 국내 미디어 아트계의 중견 작가로 각광 받으며 활발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

과거 '뉴 폴더'씨리즈를 보면 그는 인터넷 속의 노란색 폴더를 대형 조각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끄는 작업을 했었고, 이번 전시에선 '누구나 알고있는 비밀'을 통해 인터넷 속 지도의 안 보이는 부분을 대형 설치작업으로 구현했다. 이런 방식은 백남준 선생이 보여준 위트와 회화, 조각, 멀티미디어를 모두 전공한 특이한 이력에서 나오는 자유분방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매체 너머에 있는 이용백 작품세계

한국의 미디어아트를 대표하는 작가로 불리는 이용백은 작품의 주제와 그 표현 방법에 대해 끊임 없이 탐구하는 작가다. 스스로 작가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작품 활동에 의

미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매 전시마다 이용백이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실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매체와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조각과 회화, 미디어아트를 넘나들며 실험을 거듭하는 그는 이번 전시에서도 거울, 알루미늄, 모터, 흡음제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된 일곱 점의 조각 및 설치, 영상 작품을 가지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오늘날을 보여준다.

3. 작품설명



낮선 산책, 2016, 알루미늄, 유리, 모터 컨트롤러,
202x200x48cm 8piece

<낮선 산책>(2016)은 좌우 6개의 거울, 앞뒤 2개의 거울로 구성되어있다. 이 거울들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작품 안으로 들어온 관람객의 시선을 어지럽힌다. 작가는 이러한 출렁이고 흔들리는 거울 속에 작가가 느끼는 현실 세계를 표현했다.

작가는 살아온 50년 인생 중 최근 몇 년이 가장 기괴하고 이상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사고가 일어나고, 집회 중 시민이 공권력에 의해 다치고, 지하철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말라고 만든 안전문을 고치는 일을 하던 청년이 사고를 당하는 등 비상식적인 사건,사고가 넘쳐나는데 우리 주변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는 것이다. 이런 모습에서 그는 괴리감이 느꼈고 이 느낌을 일그러지고 출렁거리는 거울 속을 걸어 들어간 관람객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누구나 알고있는 비밀, 2016, 알루미늄, 백그판,
430x228x36cm

<누구나 알고있는 비밀>(2016)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지도를 선택,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계 부분인 38선 철책 부분을 확대해 만든 작품이다. 그 부분을 보면 하얀 공백이 나타나고 '이 지역은 해당 레벨에서 지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를 축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온다. 바로 군사 시설들과 주요 군사 방어 기지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으려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주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방법으로 지도 위에 표현된 공백의 공간을 작가는 현실 세계 조각으로 표현했다.



지루하고 흔해 빠진 소재를 작업하는 이유, 2015, 알루미늄, 스펀지(흡음제), 380x170x30cm, 970x380cm

<지루하고 흔해 빠진 소재를 작업하는 이유>(2015)는 알루미늄으로 된 날개와 흡음재로 만들어진 스텔스 B2 폭격기로 구성된 설치 작업이다. 작가는 학생부터 대가까지 날개라는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왜 계속 작업 할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날개라는 소재를 가지고 희망, 평화를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아직도 소재로 사용된다고 생각했고, 세상이 평화롭다면 평화를 상징하는 내용이 흥미로운 소재이지 않지만 평화스럽지 않기에 흥미로운 소재로 느껴졌다. 그런 날개 작업 밑 부분에는 스텔스 폭격기를 표현한 스펀지 작업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외형의 비행기가 전쟁을 의미하고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작가가 기존 <엔젤-솔저>시리즈를 통해 말하고자 한 미적 개념의 모순을 보여준다.

4. 전시 서문

낮선 산책

조관용 (미술평론가, 미술과 담론 대표)

복잡하거나 화려하지도 않다. 사원과 같이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차를 한잔 마시며 구경하는 것과도 같다. 이전의 그의 전시가 미술 현장에서, 또는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실존적인 삶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번 전시는 실존의 삶 이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들로 향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일종의 화두와 같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 그 근원으로 끊임없이 탐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 실체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 초심자는 종종 그의 이야기를 표면적인(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념) 문제로 읽어냄으로써 그가 건네고자 하는 본질과 마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

3개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한 작업들은 재료와 형태, 그리고 주제에 있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건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작업들은 이전의 작업들을 통해 제기해 온 실존적인 현상들에 대해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현상들의 이면을 하나하나 파고들어 가다 보면 이 작업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대한 저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2008년도 천안 아라리오 전시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첫 개인전이다. 북경의 PIN 갤러리나 아라리오 갤러리(2007, 북경)의 전시와 같이 다양한 작업들을 펼쳐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전시의 작업들은 '순간의 미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이쿠의 시와도 같이 이용백의 그간의 작업들을 하나로 꿰뚫어 보고 현상의 본질을 통찰하게 하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

B-2 스텔스폭격기의 형상은 아름다운가?

'B-2 스텔스폭격기의 형상은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은 그가 작품 <지루하고 혼해빠진 소재를 작업하는 이유>(2016)를 통해 던지는 화두이다. B-2 스텔스폭격기의 형상은 <지루하고 혼해빠진 소재를 작업하는 이유>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미술사 속 '날개'들과 오버랩된다. 관객들은 그 형태가 아름답다거나, 또는 '날개'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작가가 순수 정신의 숭고함과 고귀함을 재현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B-2 스텔스폭격기의 형상은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당혹스러움에 처하게 된다. 'B-2 스텔스폭격기'는 하늘을 날고자 했던 신화 속의 주인공인 이카루스나,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나, 또는 미술사 속의 날개를 소재로 하는 작가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름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든 기계장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름다움보다는 오히려 공포나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B-2 스텔스폭격기'를 통해 제기하는 미적 개념의 모순은 그가 <Angel-Soldier>의 일련의 작업들, <조작된 감성>(2007), <인공감성>(2002), <Angel-Soldier in Water>(2005)등을 통해 일관되게 제기해 온 질문이다. 'B-2 스텔스폭격기의 형상'은 일견 날개라는 소재로 미술사에서 '재현을 통해 정립해 온 미학적 정의'들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2016)을 보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현상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은 <Angel-Soldier>의 일련의 작업들과 같이 DMZ 인근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을 입체적인 형상 작업으로 제작하여 보여줌으로써 마치 남북한의 이념적인 문제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남북한의 이념적·정치적 갈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분열된 자아, 그것은 그 힘을 어디서 얻을까?

작품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에서 그가 주목하는 것은 DMZ 인근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의 경계선을 통해 남한에서 보는 북한의 지형도이다. 남한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의 경계선은 지형도에서 보듯이 세밀하게 경계가 그어져 있는 반면에 북한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의 경계선은 대충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남한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의 경계선이나, 또는 북한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의 경계선의 형태가 아니다.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자신의 중심에서 타인을 바

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삶의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물론 우리의 시선과 삶의 태도를 DMZ 인근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의 경계선을 통해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은 남·북한의 대립적인 상황을 은유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Angel-Soldier>의 일련의 작업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엔젤의 상징이 천사나 정신을, 솔저의 상징이 육체나 물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루하고 흔해빠진 소재를 작업하는 이유>와 연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Angel-Soldier>의 일련의 작업들은 그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엔젤(Angel)은 그에게 서구 근대 철학에서부터 이어져 온 '정신'이나 '생각'을 암시하며, 솔저(Soldier)는 '물질' 또는 '육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Angel-Soldier>(2013)는 작가가 <Twins in Monitor>(2001), <거울 속의 피에타>(2007), <조작된 감성>(2007), <인공감성>(2002)을 통해 제기해 온 문제들과 일맥상통한다. 그것은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인간의 실체를 규명하면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고, 인문학과 과학을 분리하는 사유체계와 사회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이 지배하는 세계는 그에게 <지구는 어떤 힘으로 자전하는가?>(2015) 에서 보는 것처럼 총이, 그리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감성은 가능할까?

작품 <낮선 산책>(2016)을 살펴 보면 8개의 거울들이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루며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기계 장치들을 통해 서서히 움직이는 형태를 띠고 있다. 직사각형의 공간 한가운데에는 작가의 증조부가 심고 키운 뒷산의 대나무를 화분에 옮겨 담아 설치했다. 작품 <낮선 산책>은 이번 전시의, 아니 그간의 이용백의 모든 작업들을 통틀어 하나로 관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열쇠와 같다.

<낮선 산책>의 중앙에 서서 기계장치들을 통해 움직이는 8개의 거울들을 보는 순간 관객은 시각적 환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8개의 거울에 비친 바닥의 공간들은 굴절되어 보이며, 한가운데 있는 정지해 있는 대나무들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환영과 함께 정신이 혼미한 엄청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다.

<낮선 산책>은 정신과 물질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사유방식에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낮선 산책>을 통해 관객은 시각적 이미지와 감성의 상호 작용을 경험한다. <깨지는 거울>(2007)의 설치 형태를 약간 변경한 최근작 <민낯을 바라보는 두려움>(2016)에서도 거울이 순간적으로 깨지는 현상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낮선 산책> 과 같이 정신과 물질의 일체화를 표현한 작업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수중의 압력을 통해 표현한 <Angel-Soldier in Water>(2005) 라든가, 또는 <뉴폴더 - 드래그>(2008) 나, 또는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작가가 물질과 정신을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낮선 산책>의 대나무라든가 <예수부처>(2002)의 물핑 이미지라든가 <Pieta: Self-death>(2008) 에서 보듯이,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성모마리아의 슬픔과 희생정신을 순수 정신의 숭고함과 고귀함으로 정의하는 기존 예술가들의 '피에타'의 작업과는 달리, 이용백은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도상을 플라스틱 조각 거푸집(음)과 알맹이(양)로 대치시킴으로써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세대교체와 생명 순환이라는 동양의 음양론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용백의 작업은 재현을 통해 사물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물질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미술 개념들을 통해 미적 정의를 규명하는 것도 아니다. 미학적 범주에서 그의 작업은 실험적인 것들로 보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학적 범주가 다른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시선으로 즉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시선으로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금 묻는다.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고, 인문학과 과학을 분리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감성은 온전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의 정신은 온전할 수 있을까?

5. 작가 약력

- 1966 김포 출생
- 199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1993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 회화과 학사 졸업
- 1995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 조각과 석사 졸업

현재 김포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 2016 이용백: 낮선 산책, 학교재갤러리, 서울
- 2014 핸드헬드슈팅, 슈피너라이 할레12 베아크샤우, 라이프치히, 독일
- 2011 이용백: 신천사(新天使), 품화랑, 베이징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 사랑은 갖지만, 상처는 아물겠지요, 망길리 발마라나 궁전, 베니스, 이탈리아
- 2008 플라스틱,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 2007 뉴 폴더, 아라리오베이징, 베이징
- 2006 엔젤 슬져, + 갤러리, 나고야, 일본

- 2005 엔젤 슬저, 대안공간루프, 서울
엔젤 슬저, 관두미술관, 타이페이
- 1999 촉각적 다큐멘터리, 성곡미술관, 서울
- 1993 설치와 드로잉, 첸트쇼이어 갤러리, 뉘싱겐, 독일
- 1990 물질과 비물질, 소나무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15 현대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 2014 제2회 선전 독립 애니메이션 비엔날레, 선전, 중국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 하오아트뮤지엄, 상하이, 중국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 산상당대미술관, 항저우, 중국
프리즘 - 백남준과 뉴미디어 아트,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액체문명,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3 정제된 감각, 홍콩아트센터, 홍콩
노 퀘스천, 클린겐탈 전시관, 바젤, 스위스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 하오아트뮤지엄, 원저우, 중국
어느 노병의 이야기: 130년의 우정, 60년의 기억, 아시아하우스, 런던
변형, 태국한국문화원, 방콕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 학교재갤러리, 서울
큐베13 비엔날레, OK 현대미술관, 린츠, 오스트리아
양자택일, 니콜라이 현대미술센터, 코펜하겐; 하우스 암 발트제, 베를린
아베스타 아트 2013, 아베스타, 스웨덴
무브 온 아시아: 아시아 비디오아트 2002 - 2012, ZKM, 카를스루에, 독일
- 2012 글로벌 그루브, 일라이 앤 에디스 브로드 미술관, 이스트랜싱, 미국
로드 투 12 - 104마일, 팔레 드 글라스, 부에노스 아이레스
디지털 미학 2012, 해리스박물관 및 미술관, 프레스턴, 영국
유희적 저항, 캔버스인터내셔널아트, 암스테르담
우리는 행복한 시지프스를 상상해보아야 한다, 하우스 오브 더 노블맨, 런던
몸의 사유, 소마미술관, 서울
리부팅, 연황예술관, 베이징
나눔을 위한 도전, 바렌츠 스페타클, 노르웨이
- 2011 함께하는 경기도미술관, 닥터박갤러리, 양평
제3회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특별전, 갤러리 지지향, 파주
상상력의 뿌리, 갤러리압생트, 서울
Fool the Eye, 박여숙화랑, 서울
추상하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키메라,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싱가포르
- 2010 춘추, 학교재갤러리, 서울

- 플라스틱가든: 한국현대미술, 민생미술관, 상하이, 중국
 다른 유사성, 보훔미술협회, 보훔, 독일
- 2009 가상선, 갤러리현대, 서울
 이미지 내이션, 살롱드에이치, 서울
 오지, 쿤스트할레 파우스트, 하노버, 독일
 다른 유사성, 산트랄 이스탄불, 이스탄불, 터키
 모스크바 비엔날레, 모스크바
 류블라나 그래픽아트 비엔날레, 류블라나
 코리안 아이: 문제너레이션, 사치갤러리, 런던
 통로_09 유니버설 큐브, 라이프치히, 독일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IDA 프로젝트: 특유의 지형 영상과 뉴미디어, 중국; 일본; 호주
 APT 프로젝트, 예술가공동신탁, 베이징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08 겹쳐한 기념비: 한국 현대미술, 킹스린아트센터, 노퍽, 영국
 제3회 난징 트리엔날레 - 반영된 아시아, 난징박물관, 난징, 중국
 제5회 부산비엔날레 - 낭비, 부산
 판타지 스튜디오 프로젝트, 더 블레이드 팩토리, 리버풀, 영국
 확장된 감각: 한국/일본 미디어아트의 현재, 대안공간루프, 서울
 다시보기: 현대미술의 특징,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국립미술관, 부에노스아이레스
- 2007 트랜스 팝: 한국 베트남 리믹스, 아르코미술관, 서울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산티아고 현대미술관, 산티아고
 소프트파워,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서울
 프라하 현대미술제 - 티나 B, 프라하
- 2006 겨울나라 엘리스: 한국현대미술, 아시안아트하우스, 런던
 울룩세임/투투게일: 중국 한국 일본의 미술, 신프레드 레 레바우덴고 재단, 토리노, 이탈리아
 여자를 밝히다, 페이퍼테이너 뮤지엄, 서울
 부드러움, 소마미술관, 서울
 씨킷 다이어그램 런던, 프로젝트 스페이스 셀, 런던
 씨킷 다이어그램 서울, 송원아트센터, 서울
 슬로우 텍, 타이베이현대미술관, 타이베이
 노출: 검은상자와 크리스탈 공, 런던 카운티 홀, 해럿백화점, 런던; LG i 갤러리, 런던
 파셋-이즘의 예술, 우쓰노미야미술관, 우쓰노미야; 갤러리Q, 도쿄
 차이점, 뷔르템베르크 미술협회, 슈투트가르트, 독일
 청계영상극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제5회 점토와 유리 국제 영화제, 코룸 인 몽펠리에, 파리
- 2005 두 개의 아시아, 두 개의 유럽, 상해 뉘런 현대미술관, 상하이, 중국

- 바나나서퍼, 이음화랑, 베이징
 IMF이후, 아트아크갤러리, 상하이, 중국
 베를린에서 DMZ까지, 소마미술관, 중국
- 2004 잭! 전시, C.A.S., 오사카, 일본
 미디어시티서울 비엔날레 인 타이페이 - 디지털 송고, 타이베이당대예술관, 타이베이
 유별난 조합, +갤러리, 일본
 창문 밖, 프로젝트스페이스 집, 서울; 재팬파운데이션, 서울, 도쿄
 백남준을 위하여, 스페이스씨, 서울
- 2003 모바일 프로젝트 01 밀라노 '프론토', 대안공간 케어 오브, 밀라노, 이탈리아
 모던 아트 인 하드코어 디올, 원화랑, 서울
 S.O.S, 화이트엘레펀트갤러리, 베를린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일렉트릭 파워, 한전아트센터, 서울
- 2002 크로싱 2003: 코리아/하와이 I, 하와이 아트갤러리, 호놀룰루
 제8회 국제 신발상자 조각전시, 하와이 아트갤러리, 호놀룰루, 미국
 제2회 미디어시티서울 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제5회 광주비엔날레 - 중지, 광주
 한국의 빛과 색 - 서울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백남준과 미디어아트, 연세대학교, 서울
 미디어아트 대전-뉴욕 스페셜 이펙트,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크라스토 축제, 중앙대학교, 서울
 매체의 재고, 이천아트센터, 이천
 건축과 미술: 사이에 대한 탐구, 스페이스이마, 서울
- 2001 1초, 대안공간 루프, 서울
- 2000 서울 국제행위예술제, 서울
 베니스비엔날레 2000, 제7회 국제건축전, 아르세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제1회 미디어시티서울 비엔날레: 디지털앨리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무서운 아이들, 쌈지스페이스, 서울
 인공·감성, 갤러리퓨전, 서울
 담론: 80년대 소그룹의 작가들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
 대전 미디어아트 2000,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가상공간의 샤머니즘, 한원미술관, 서울
- 1999 시각문화 세기의 전환, 성곡미술관, 서울
 도시와 영상: 세기의 빛,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1998 미디어 안과 밖, 서남미술관, 서울
- 1996 기술과 반(反)기술,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96 과학+예술, 인터랙티브 갤러리 코엑스, 서울
 개관 10주년 기념전, 첸트쇼이어 갤러리, 뮌헨, 독일
- 1995 조각과 오브제, 쿤스트하우스, 울름, 독일

- 접촉, 옐로우하우스 (에슬링겐 시립미술관), 에슬링겐, 독일
 음악과 영상, 빌헬름 극장, 슈투트가르트, 독일
 조각, 글라스카스텐, 슈투트가르트, 독일
 1994 가깝고도 먼, 암 보쉬베르크, 슈투트가르트, 독일
 1991 현대미술의 기수, 갤러리아 갤러리, 서울
 1990 90년대 통합으로의 미술, 타래미술관, 서울
 제2회 황금사과, 타라 공동전, 토탈미술관, 서울
 채집, 삼정화랑, 서울; 나화랑, 서울
 어떤 판화, 갤러리2000, 서울
 누름 판화, 관훈미술관, 서울
 소음/OUT, 청년미술관, 서울
 동아미술제: 특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9 제9회 한국현대판화공모전: 특선, 미술회관 (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
 한일교류전, 후쿠오카 대학교, 후쿠오카, 일본
 양대팡당,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8 양대팡당,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동아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아르켄 현대미술관, 덴마크
 도이치뱅크, 독일
 함부르크반호프 현대미술관, 베를린
 프리더부르다 미술관, 바덴바덴, 독일
 작센은행, 독일
 오펜하임은행, 쾰른, 독일
 에셀 현대미술관, 오스트리아
 라인골드 GbR, 뒤셀도르프, 독일
 스텔링하 사실주의미술관, 스파브록, 네덜란드
 루벨 패밀리 컬렉션, 마이애미, 미국
 오르시재단, 밀라노, 이탈리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티로체 딜레온 컬렉션, 이스라엘
 엘리와 에디트 브로드 미술관, 미시간주립대학교, 이스트랜싱, 미국
 하오아트뮤지엄, 상하이, 중국